

共 ZONE

세계인과 함께 만드는 해피타임
Korea Immigration Service Quarterly Magazine



정부합동 고충상담

제2회 한마음 걷기축제

세계인이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걷고, 화합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일시 | 2012.10.28 일요일

장소 | 상암동 월드컵공원(평화의 광장)

세계인이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AUTUMN THEME ENJOY! 관광 한국

IMMIGRATION NOW ▶

체험, Korea! 순천, 갈대밭과 남도의 맛에 매혹되다 우리팀 포커스 한·미 자동심사운영단
만나고 싶었습니다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WOW 출입국 탐방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음력 8월 15일은 한국을 대표하는 명절 추석(秋夕).
 한 해의 첫 수확물을 조상에게 바치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미국에도 한국의 추석과 같은 날이 있습니다.
 11월 넷 번째 목요일에 행해지는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
 한국에서 추석을 맞아 사람들이 귀경길에 오르듯
 미국에서도 추수감사절엔 각지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함께 칠면조 구이와 햇곡식을 먹으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거리 퍼레이드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추석과 추수감사절은 이름과 모습은 다르지만,
 자연에 감사하며 가족과 함께 음식을 나누려는 마음은 모두 한가지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추석을 통해 가족 간의 정을 나누 듯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여러분의 마음에
 보름달처럼 따뜻하고 풍요로운 정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만드는 풍요롭고 행복한 사회

한국말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은 서로간의 신뢰에서 비롯된 마음을 표현할 때 쓰입니다. 다인종의 사람들이 어울리며 각자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법과 질서’가 필요하다면, 그 사회를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7일부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한시적으로 ‘신원불일치자 자신신고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입국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의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법과 질서뿐만 아니라 재한 외국인 여러분에게 믿음을 드리는 정책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Society of Happiness and Abundance Based Upon Trust

The Korean word “Mideum”, which refers to “trust” in English, is widely used to express the feeling arises from the faith between each other. If it is the “law and order” that is vital to protecting everyone’s right, as we live in harmony with multicultural, multiracial people, then it will be the “Mideum” to make the society more abundant and happier.

Since September 17, 2012, the nationwide immigration offices have implemented the policy for “Voluntary Notification of Identity Mismatch” on a temporary basis. This is a policy designed to alleviate social side effects of the current Biometric Identification System. Korea Immigration Service is fully committed to make the Korean society happier and prosperous not only by upholding the law and order but also by making a policy for foreign residents to give them trust. 🌻

Commissioner of Korea Immigration Service
Chang Se LEE



共 ZONE

2012 AUTUMN NO.27
 세계인과 함께 만드는 해피타임



34



12



16



22



32



38

CONTENTS

- 02 공존의窓
- 03 Editor's Message '믿음'으로 만드는 풍요로운 사회

SPECIAL THEME

- 06 Theme Intro 신속하고 편리하게 한국여행을 즐기다
- 08 Theme Guide 여행객을 위한 출입국 서비스
- 12 Theme Site 한국 관광안내전시관을 가다
- 14 Theme Review '출입국 스타일' 알고 계세요?
- 16 체험, Korea! 순천, 갈대밭과 남도의 맛에 매혹되다
- 20 Happy Together 사랑의 기적 이룬 김갈리나 씨 가족
- 22 희망교실 스케치 다문화 어울림한마당 '가을운동회'
- 26 공존 초대석 한국음악과 사랑에 빠진 마이클 시드니 팀슨
- 30 출입국 Q & A 재외동포비자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IMMIGRATION NOW

- 32 우리팀 포커스 한·미 자동심사운영단
- 34 만나고 싶었습니다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 37 출입국 NUMBERS 자동출입국심사 가입자 1백만 명 돌파
- 38 WOW 출입국 탐방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 42 특별한 만남 출입국 관련 전문 변호사 차규근
- 44 해외 단신 세계이민동향 No. 81
- 48 출입국 News 3분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식
- 50 Blue Post 독자에게 온 편지
- 51 역사에서 배우는 한국 新한류의 원천 '한글'



38



COVER STORY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한국

아내의 손을 다정하게 잡고 경복궁을 둘러보는 스위스인 Urs Manser(47) 씨. 그는 부산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전시회 일정은 끝났지만, 서울과 부산의 명소를 찾아 다니며 한국관광을 즐기고 있는 중이다. 그는 여행 초반에 언어가 통하지 않아 막막했지만 한국인들이 친절하게 도와준 덕에 즐겁게 여행할 수 있었다고.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한국이 매력적이라는 Urs Manser 씨. 그가 한국여행을 통해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을 가득 만들길 바란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한국 여행을 즐기다

ENJOY!

관광한국

- 01 THEME GUIDE 여행객을 위한 출입국 서비스
- 02 THEME SITE 한국 관광안내전시관을 가다
- 03 THEME REVIEW '출입국 스타일' 알고 계세요?

TRAVEL
KOREA

● 한국관광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19% 증가한 84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1,130만 명의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화권 관광객은 288만 명, 일본도 277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늘었고, 이밖에 아시아 중동과 미국·유럽 관광객도 각각 100만 명을 넘어서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관광객 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을 찾는 외국인 여행객과 단기체류자가 불편없이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빠르고 편리한 출입국 정책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올해 6월 시행된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는 양국이 자국의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을 일정 요건이 충족된 상대국 국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한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ES)에 가입한 국민으로서 미국의 자동출입국심사 프로그램(GE:Global Entry)에 가입한 사람은 미국 입국 시 심사관의 대면심사 없이 편리하고 빠르게 수속을 마칠 수 있다. ● 최근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과 동남아 11개국 관광객을 위해서는 비자 관련 절차가 축소됐다. 중국 관광객의 경우는 복수비자 및 무비자 입국대상을 확대하고, 비자발급 절차도 획기적으로 간소화했다. 동남아 국가는 제출해야 하는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간소화하고, 인센티브 관광제와 '더블비자'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복수비자' 발급 대상과 가족단위 관광비자 발급대상도 확대했다. ● 일본, 중국, 미국 등지에서 크루즈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는 관광상륙허가제를 시행한다. 이는 사전 신청을 통해 3일 범위 내에서 개별심사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경우 한·중 양해각서에 따라 지정된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경우 사증 없이 관광상륙허가의 신청이 가능하다. ● 이처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점을 감안해 국가별로 맞춤형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즐거운 한국여행을 돕고 있다. 이는 한국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에서 '관광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동남아, 중국, 일본 등 각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을 찾은 여행객은 물론 단기체류자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불편없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도록 돕고 있다.

Korea Immigration Service (KIS) provides a convenient and expedited immigration service to foreign tourists. With a customized service to each country including the US, South-East Asian countries, China and Japan, KIS helps create an environment where foreign tourists and short term residents alike can have a cherishable memory and stay without any inconvenience.

Welcome to Korea! 신속하고 편리한 한국여행

Welcome to Korea! Quick and Easy Trip to Korea

자동출입국심사 상호 이용 프로그램으로 미국 더 가까워져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작년 한 해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은 무려 1,000만명이나 된다. 이 중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여행객만 연간 200만 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6월 13일부터 양국의 교류와 출입국 편의를 위해 한-미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ES-GE)는 양국이 자국의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을 일정 요건을 갖춘 상대국 국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한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ES)에 가입한 국민으로서 미국의 자동출입국심사 프로그램(GE:Global Entry)에 가입한 사람은 미국 입국 시 심사관의 대면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서비스 이용 신청자는 한·미 양국에서 입국규제여부,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여 가입 적격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며, 범죄혐의 유

죄판결을 받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등에는 등록신청이 불허된다. 미국인의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신청 및 심사 절차는 아래와 같다.

서비스 신청 후 승인까지는 최소 2주에서 최대 3개월이 소요되며, 등록일로부터 5년간 유효(등록일로부터 신분증 상 도래하는 첫 생일부터 5년이 되는 해의 생일까지)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에 설치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으며 등록은 공항 3곳 이외에 서울역 출장소, 도심공항터미널에서도 가능하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금년 하반기 안으로 네덜란드와도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상호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며, 향후 상호 이용 대상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미국인의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ES-GE) 신청절차

미국 홈페이지에 신청 → 심사 후 한국으로 신청정보 전송 → 한국 심사 → 심사결과 미국에 전송 → 지정일에 자동심사 등록센터 방문 후 수수료 납부(\$ 100), 인터뷰, 자동심사대 등록 → 자동심사대 5년간 이용

Closer to the US, Reciprocal Trusted Traveler Program

Since June 13, 2012, KIS has implemented the Korea-US reciprocal trusted traveler program, Smart Entry Service-Global Entry (SES-GE), to promote the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enhance the convenience in immigration services. The SES-GE is a program that connects the automated immigration clearance systems of both countries to mutually benefit the citizens who satisfy certain requirements. If a US national who is a member of the GE signs up for the SES, the person may complete the immigration clearance in an expedited way by simply passing the auto gate, rather than visiting the entry inspection booth at an airport upon arrival in Korea.

Application Process of SES-GE for US National

Apply at US website → Application Data Transmitted to Korea after Vetting in the US → Vetting in Korea → Vetting Result Transmitted to the US → Pay Enrollment Fee (\$100) at Enrollment Center, Interview and Enroll on a Scheduled Date → Use SES-GE for 5 years

It takes two weeks to three months before approval,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If approved, the membership is valid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of enrollment (from the first to fifth birthday after enrollment, as stipulated in the identity document).

In Korea, the SES-GE kiosks are installed at Incheon, Gimpo and Gimhae international airports and the enrollment center is established at Korail Airport Railroad Seoul Station & Terminal and COEX City Airport Terminal as well as the three airports mentioned above.

급증한 중국 관광객, 비자 관련 절차 축소

최근 국내 대표 관광도시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만나는 일은 흔한 일이 되었다. 그만큼 중국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것. 정부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복수비자 및 무비자 입국대상을 확대하고, 비

자발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중전 중국국민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은 의사, 대학강사, 연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제한했으나, 이를 의료관광객, 외국투자기업 임직원, 공기업 직원 등 재정능력이 확인되고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중국인에게 확대 시행한 것이다.

복수비자 발급 대상자 확대

- 의료관광 사증으로 입국한 적이 있는 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자
- 부동산, 금융재산, 사업체 등 개인재산 500만 위안 이상 보유한 것을 입증한 자
- 중국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
- 100만 불(10억 원) 이상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
- 단체 여행객 인솔 전문 여행사의 가이드로 입국한 적이 있는 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자
-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는 55세 이상인 사람
- 우리나라 또는 OECD 국가를 2회 이상 방문한 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자

복수비자의 대상 변경 외에 유효기간도 확대되었는데, 복수비자 최초 발급 시 유효기간 3년, 과거 복수비자 발급 경력자에게는 5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하게 되었다.

비자신청 서류도 간소화되어 과거 의료관광 비자와 복수비자를 발급 받았던 중국인으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 없이 재차 비자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 이외 모든 추가 서류를 면제한다. 또한, 정부는 인천공항에서 환승(통과)하는 여객에 대해 12시간 이내 무비자입국을 허용하는 소위 '환승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금년 10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인천공항과 제주간 환승전용기를 운영함으로써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제주도로 입국하는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Streamlined Visa Processing for Surging Chinese Tourists

Since August 1, 2012, KIS has expanded the eligibility for

the multiple-entry visa or no-visa entry and innovatively streamlined the visa processing in an effort to aggressively attract a fast-growing number of Chinese tourists to Korea. In the past, the multiple-entry visa was restrictedly issued to doctors, professors and pension beneficiaries. Now, the eligibility for the visa has expanded to the Chinese people who have established financial stability and are less likely to remain in Korea as an illegal resident - medical tourists and employees of foreign-invested or state-owned companies.

Expanded Eligibility for Multiple-Entry Visa

- A person who had entered Korea under the visa for short-term medical tourists and who has a clean criminal record including immigration offences such as overstaying
- A person who has proved his or her personal possession worth 5million Yuan or over including real estate, financial asset and business
- A person who is a Chinese government official or an employee of Chinese state-owned company
- A person who is an employee of a company which invested 1 million dollars (1 billion won) or over to Korea
- A person who had entered Korea as a tour guide of group tourists and who has a clean criminal history including immigration offences such as overstaying
- A person who is a retired pension beneficiary aged 55 and over
- A person who had visited Korea or OECD countries twice and more and has a clean criminal record including immigration offences such as overstaying

The changed parts of the multiple-entry visa are not only the eligibility but also the term of validity: for initial issuance, the visa is valid for three years and from the second issuance, the visa is valid for five years.

The document requirements for visa processing have been

also streamlined. If a Chinese national who had been issued a medical tourist's visa and multiple-entry visa applies for the same visas with a clean criminal history including immigration offences such as overstaying, the person is exempt from any other document requirements except the application form.

동남아 11개국 관광객 위한 서류 간소화 시행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최근 신혼관광 시장으로 떠오르는 동남아 11개국(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의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1일부터 이들 국가 국민에 대한 관광비자 신청서류와 발급절차를 간소화했다.

먼저 관광비자 신청서류와 발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최대 5종까지 받았던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공관별로 실정에 맞게 간소화하여 운영 중인데, 기업의 단체관광인 인센티브 관광 유치를 위해 개인별 서류는 생략하고 주관회사의 보증으로 비자발급 가능해진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최근 인천공항의 환승 이용객이 5,662,722명(2011년 기준)에 달하는 등 인천공항이 환승 공항으로 각광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동남아 국민을 대상으로 6개월 내 2회 사용이 가능한 '더블비자' 제도를 도입했으며, 최근 관광 트렌드가 가족단위인 점을 고려하여 가족단위 관광비자 발급대상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간소득 1만 불 이상의 중·상류층, 연금 수령자, 언론 등 전문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 결혼이민자의 부모, 가족단위 관광객 등에게도 3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Streamlined Document Requirements for Tourists from 11 Middle-East Countries

Since April 1, 2011, KIS has streamlined the document requirements and visa processing for tourist visas to the nationals of 11 South-East Asian countries (Myanmar, Cambodia, Sri Lanka, Indonesia, Laos, Nepal, Pakistan, the Philippines, Vietnam, India, Bangladesh), which are emerging as a new tourist destination, to aggressively attract them to Korea.

In an effort to simplify the application process for tourist's visa and visa processing, KIS has adjusted the document requirements for verifying financial capabilities by diplomatic mission rather than requiring up to five types of documents.

Welcome to Korea!

In particular, the tourist's visa will be issued without individual documents under the guarantee of the host agencies to attract incentive tours, the business group tour.

In addition, given the popularity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s a transit airport with the number of transit passengers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t 5,662,722 as of 2011, KIS has introduced "Double Visa", which allows two-time entry in six months for the nationals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KIS has also expanded the eligibility for tourist's visa for families considering the latest trend in travel is family travel.

Moreover, KIS has issued multiple-entry visas valid for three years not only to the middle and upper income group with an annual salary of 10,000 dollars and higher, pension beneficiaries and professional workers such as journalists but also to the graduates of Korean universities, parents of marriage migrants and family tourists.

개별 입국심사 없이 빠르게~ 관광상륙허가제

제주, 부산 등 국제 크루즈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는 지난 5월 27일부터 관광상륙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관광상륙허가제는 대한민국과 외국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크루즈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하여 운수업자의 신청으로 3일 범위에서 개별심사 없이 입국을 허가하는 제도다.

일정요건을 갖춘 승객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등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크루즈 여행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으로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크루즈 관광객만도 2011년 145,225명에 이어 올해는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적용 대상은 해운법·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취득 및 크루즈사업 등록을 한 운수업자가 운항하는 2만 톤 이상, 3개국 이상을 순항하는 선박에 탑승한 승객이며 엑스포 등 공신력 있는 대규모 국제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입항하는 크루즈선과 국제교류, 협력 등을 위해 출입국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박 요건을 완화해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한·중 양해각서에 따라 지정된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경우 사증 없이 관광상륙허가제 신청이 가능하다.

Landing Permit for Tourism, Fast Entry without Individual Entry Inspection

Since May 27, 2012, KIS has implemented a policy for landing permit for tourism. The landing permit for tourism allows the entry of foreign tourists on board of the cruise ships that internationally sail around the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foreign countries without individual entry inspection upon request of the vessel carriers within the range of three days.

KIS provides an expedited immigration service to the cruise ship travelers by allowing no-visa entry to a passenger who qualifies for certain requirements. The eligible passengers are those on board of the vessels with tonnage of two tons or over that sail around three or more countries under licensed or registered cruise ship carriers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Marine Transportation Act or Tourism Promotion Act. If a cruise ship enters a port of entry in Korea to attend an established large-scale international event, or if it is deemed necessary to collaborate immigration services with other countries for the purpose of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passengers may enjoy the convenience from eased requirements for vessels.

The Chinese group tourists gathered by a designated travel agency under the MOU between Korea and China may apply for the landing permit for tourism without visas. 🇰🇷

THEME SITE

이곳에 오면 한국이 한눈에 쏙~!

한류열풍과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한껏 꿈에 부풀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게 다양한 관광정보와 교통편, 숙소 등 꼼꼼한 여행정보는 물론, 한류 체험과 한식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전시관을 찾았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ONE-STOP 서비스 제공

관광안내전시관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전화, 방문, 이메일을 통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언어가 불편한 외국인들을 위해 숙박, 공연, 교통편 등의 예약을 도와주고 있다. 특히 최근엔 한류 붐에 맞춰 K-POP 스타들을 전시한 'K Star Gallery'와 관련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한류판매관, 한국의 전통 공예품을 만날 수 있는 한류관광명품관을 마련해 외국인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에 맞추고 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정보 제공 외에도 멋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엔 수요가 급증한 의료관광객을 위해 의료관광안내센터를 설치, 한국의 뛰어난 의료서비스, 특히 건강검진과 피부과 및 성형외과 진료, 한방 등 여러 분야의 의료서비스 시설에 관련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한국관광 TIC에서 시작하세요

TIC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국의 관광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곳입니다. 한국 관광을 시작하시기 전에 TIC를 방문하시면 전국관광 일정과 교통, 숙박 등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특히 공사에서 운영하는 24시간 관광안내전화 1330을 꼭 이용해보세요. 영어, 일어, 중국어 건설턴트가 24시간 대기하며 여러분에게 여행정보, 언어불편, 응급 상황 및 불편사항에 대해 도움을 드립니다.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팀
이경희 선임매니저



전국 여행정보가 이곳에~

"익스큐즈미~" 간편한 복장에 배낭을 멘 외국인 관광객이 관광안내데스크로 다가가 부산 해운대 여행에 대해 문의하자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능숙한 영어로 부산의 주요 관광지지는 물론 교통편과 숙소, 먹거리 등 다양한 정보 제공과 부산형 차편의 예매까지 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곳은 단체관광객보다는 개별 관광을 오신 외국인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개별 여행을 오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여행코스나 숙박 등 모든 계획을 짜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정보나 기타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죠."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전국의 관광정보 안내가 가능한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전시관(Tourist Information Center 이하 TIC)은 여행정보를 원하는 개별여행자들과 문화체험을 원하는 해외 단체관광객들의 필수코스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곳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관광안내 및 각종 관광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관한 관광안내전시관은 총 450평 규모로, 관광안내데스크, 한류관, 의료관광홍보센터, 한식체험관, 여행사, 기념품판매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절로 텅 빈 도시 속 여행자를 위한 체험공간

전통한복을 차려입고 멋진 포즈를 취하는 이집트 외국인 관광객 옆으로 어설픈 포즈로 오색술이 화려한 제기차기에 여념이 없는 중국인 관광객의 모습도 보인다. 또 전시관 한편에서는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웃이다~"를 외치며 윷놀이에 한창인 아프리카 단체 관광객들의 모습도 보인다. "설, 추석은 한국의 최대 명절이지만 정작 그 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교통정체와 은행 및 음식점 등 주요 편의시설의 휴무로 인해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의 고유 명절을 외국인 관광객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민속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어요." 관광안내전시관은 명절 때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설, 추석명절에 민속놀이 체험마당을 운영하고 있다. 2009년부터 매월 정기행사로 진행된 체험마당에는 한글이름 나누주기, 한복 입기 체험, 투호놀이, 윷놀이, 제기 차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이 이어졌으며, 2011년 한해 연간 100일 행사기간에 총 16,000여 명의 내·외국인 관광객이 참가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즐거워 한국여행 '출입국 스타일' 알고 계시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매해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이 즐겁고 편안하게 한국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출입국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연 관광객은 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거리에서 만난 이들에게 물었다.

Satosiya (32 일본) • 이틀 전에 친구와 함께 제주공항을 통해 한국에 왔어요. 오늘은 서울에 와서 인사동과 삼청동을 둘러봤는데 신기한 것도 많고 정말 재밌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여행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입국할 때 심사도 빠르고 직원들도 친절해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관광상륙허가제를 신청하면 개별심사 없이 제주도에 갈 수 있다니 편리한 서비스네요. 다음에 제주도에 갈 때는 쿠투를 이용해봐야겠어요.



Wangjeong (25 중국) • 저는 친구와 함께 여행사의 단체비자로 한국에 왔어요. 서울은 깨끗하고 굉장히 발전된 도시예요.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정말 친절해 돌아가기 싫을 정도예요. 한국의 발달된 의료기술은 중국에서도 유명해요. 의료관광 비자를 받으면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이 발급된다니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알아봐야겠어요.

Lisa (25 미국) • 남자친구와 동남아 여행을 마치고 혼자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환승을 위해 한국에 잠시 머물며 쇼핑을 하고 있죠. 미국인도 한국에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국의 출입국심사가 워낙 빨라서 이용할 필요가 없었죠. 한국을 자주 드나들며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Koren (55 미국) • 남편과 아이와 함께 서울에 온 지 3일째예요.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는 '동양국가'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서울의 서구적인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정말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에요. 미국에서 출국할 땐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를 이용했는데 한국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다음에 입국할 때는 꼭 이용해 볼게요.



Pinna (36 중국) • 한국에 올 때 가족 중에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걱정했어요. 그런데 공항에 중국어로 된 안내소가 많아 전혀 불편함이 없었죠. '12시간 시내 환승관광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무사증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니 반가운 소식이에요. 다음에 환승할 기회가 있다면 인천공항을 이용해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어요.



Jagapnakash (35 인도) • 아내가 한국의 통신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내를 보기 위해 일주일 전 아이와 함께 한국에 왔죠. 현재는 단수비자로 입국했지만, 조만간 복수비자로 바꾸려고요. 최근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어 비자를 받는 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입국할 때 사람이 붐비는 시간대였음에도 출입국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줘 좋았어요.



Ninik (28 인도네시아) • 한국여행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은 전혀 없었어요. 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서류도 간단했고 비자발급도 3일밖에 안 걸렸어요. 혼자 힘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한국여행을 준비했죠. 혼자 외국 여행을 한다는 게 무섭기도 했지만, 직접 와서 보니 모든 사실이 정말 깨끗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하게 대해줘 기대 이상이에요.



Be fascinated by the golden reed and a hearty southern taste SUNCHEON



황금 빛 갈대와 푸짐한 남도의 맛에 매혹되다

국내 최대 생태습지인 순천만을 품고 있는 도시 전라남도 순천. 순천의 젓줄인 동천과 옥천의 맑은 물줄기가 도시를 관통하고 있어 예로부터 먹을 것이 풍부하고 물 맑기로 유명한 도시다. 순천만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풍요로운 자연과 남도의 손맛이 살아 있는 맛깔스러운 한정식을 맛볼 수 있는 그곳, 순천으로 떠나보자.

Jeollanamdo Suncheon, the city has nation's biggest eco-wetland called the "Suncheon Bay", is a famous from old times for clear water and abundant foods by having its lifeline of East Creek and Ok Creek running cross the city. The place where rich nature is stretching out around the "Suncheon Bay" and can experience tasteful Korean traditional cousin with unique southern flavor, let's depart to Suncheon.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 생태도시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로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 도시 순천. 인구 20만의 중소도시지만, 기차여행의 필수 코스로 각광받으면서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행사를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끌기 위해 외국인전용 여행버스 'K셔틀'을 운행하는 등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순천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자연 자원을 지혜롭게 활용한 도시다. 순천만 생태공원, 낙안읍성, 문화의 거리 등 순천의 주요 관광지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법을 보여준다.

순천이 여행지로 인기를 끄는 이유는 각종 투어 프로그램이 풍성하기 때문. 예코투어, 순천만 투어 등 테마별로 프로그램을 선택해 순천여행을 즐길 수 있다. 순천시에서 직접 운영하기에 가격 또한 저렴하다고. 투어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관광순천 홈페이지(<http://tour.su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co city where harmonized by human and nature

Suncheon, the city attracts global attention by hosting 'Suncheon Bay Garden Expo 2013'. Recently, as preparing for upcoming international event, Suncheon is introducing various tour programs for foreigners like foreigner's exclusive tour bus line named 'K Shuttle', to attract tourists from overseas. Suncheon is a city that wisely utilized rich and beautiful natural source. All major tourist attractions of Suncheon, such as Suncheon Bay Wetland, Nakan Town, and Cultural Street are presenting the way for human and nature to coexist by not only baring beauty of nature, but also providing convenience to tourists at the same time. Another reason for Suncheon being famous tourist city is variety of tore programs. These programs are offered at low price by Suncheon city government and detail information can be found on the web-site of Suncheon city at <http://tour.suncheon.go.kr>.



The unique scenery of Suncheon Bay that cannot be seen from any other country, it is truly amazing!

Sunset of Suncheon Bay watching from Yongsan observatory is so beautiful. It is worthwhile to come all the way up here. Mud flat, reeds and birds.... It is really amazing scene that I never seen from anywhere else.

Anandine (30, France) / Tourist



The best park ever built by nature, Suncheon Bay Eco Park

“Look~ there are fishes swimming through reeds!” “Over there! There is a crab too” Children, who saw little mud hopper and stone crab swimming around thick field of reeds of Suncheon Bay, seem quite amused by living creatures of mud flat being seen for the first time in their life. Suncheon Bay is an ecological wetlands that is considering as world’s top 5 coastal wetlands composed by 22.4km²(5,535 ac) of mud flat and 5.6km²(1,383ac) of field of reeds. Together with living creatures of mud flat like, mud hoppers and stone crabs and hooded crane which only inhabit in clean area, Suncheon Bay is also a paradise for seasonal birds of about 220 kinds. However, best of all, the signature icon of Suncheon Bay is field of reeds that turn into golden color during fall season. Distinctive scenery of Suncheon Bay from Yongsan observatory evokes tourist’s appreciation. Beside Yongsan observatory, Suncheon Bay also offers many ecology experience programs like mud flat experience and on board tour.

Rising mecca of tourism! The cultural street

Suncheon cultural street that has created in 5 years ago, is a tourist attraction developed by community and artists by taking ‘Insadong’ as a role model. It is not yet popular to general public as most of people will reply as “Is there such place?” However, number of visitors continuously increases as the place becoming famous through word of mouth and culture & art library called ‘Hanokgulbang’ converted from old traditional house is the icon of the street. Other than regular closing day (Monday), the place is always open to public for use. In addition, various kinds of traditional artistic activities, such as ceramic art, Hanji (traditional handmade paper) art, macrame and natural dyeing can be experienced from art shop. All activities require reservation to participate by visiting (<http://cafe.daum.net/sculturelove>)

Time travel to Chosun Dynasty Era, Nakan Village

How was it like Korea in 600 years ago? Just as traveling time, day to day living can be experienced by visiting Nakan village. Nakan village is the only place where the old traditional phase of life is kept within city parameter. Grass roofed house, traditional inn and market place are reproduced as the original and the village is just like the one from Chosun dynasty as there are over 200 units of grass roofed houses are built in and out of fortress. At Nakan village, in addition to viewing grass roofed house, live-in experience at this grass roofed house can be attained. Lodging experience at glass roofed house will be something special that cannot be experienced from anywhere else. Furthermore, there are many different performing events, which related to Korean traditional culture, like Castle Guard Rotation Ceremony and Gayageum (Korean zither with twelve strings) concert are being performed during weekend.

A plant of famous Korean wave drama, Suncheon Drama Sets

Suncheon drama sets, which famous for filming location of ‘Kim Tak Gu, the king of baker’ ‘Light and Shadow’ and many others famous Korean dramas reenacts such a small objects like electrical wire, name plate on house gate and kettle in room. The main stage of sets is places like restaurant, dress shop and bakery shop from back street of Suncheon downtown in 60’s and shantytown of Seoul in 70’s For shantytown of Seoul, houses were actually built in the same way of real construction during that time. Visitor name Lee, Eun Soo(33) from Namwon stated that “I was wondering if this village was the original since all houses looked very real. But, I learned it was reproduced to film drama titled ‘Love and Ambition’. I truly feel like the main actor of the drama as walking around and visiting the house of the main character”.

Taste and Aroma of wild tea, Suncheon Traditional Wild Tea Center

There is a complex of tradition house just about 10 minutes from Sunam temple. This place is a Suncheon Traditional Wild Tea Center where all locally grown wild tea of Suncheon can be tested. Wild tea of Suncheon is not quite popular due to small quantity production. This wild tea sowed its seed from mountain, is eco friendly organic tea by observing clear water from surrounding area as its roots grow up to 2m -4m. The traditional tea ceremony can be experienced at cost of 2,000 won without reservation. It would be valuable experience to heal body and mind with sweet aroma of tea at traditional house.☺

Suncheon Travel TIP

Taste of Southern province from Suncheon!

Mud Hopper Stew (Jjang Toong Oh Tang)

Mud hopper that only can inhabit in clean mud-flat of Suncheon bay.

Mud hopper of Suncheon bay can be caught from spring to fall but, ones

from fall season are the best for taste as abundant nutrients are preserve in their body for winter season. Mud hopper stew with full of veggies is a true delicacy of Suncheon bay.



Traditional Formal Course Meal (Baek Ban Jung Sik)

Southern province where culinary culture has well developed from old times with abundant foods.

Traditional formal course meal of Southern province

has minimum 10 -12 side dishes and is the way to experience the authentic taste of Korea. Areas of Suncheon Station and Terminal are good place to try traditional formal course meal.



Tripe Alley (Gop Chang Gol Mok)

Suncheon tripe alley with 36 years of history located at Suncheon Joong Ang Si Jang (central market).

This place is famous for spicy beef tripe hot pot not grilled tripe.

Spicy beef tripe hot pot with full of tripe and veggies may little strange to foreigners for the first time, but it is just matter of one try.



Suncheon Culture and Tour Guide

Program that major tourist attraction and historic sites of Suncheon are introduce by professional tour guide with extensive knowledge

of Korean history, culture and tourism. This program helps to understand and experience history and meaning of tourist attractions and historic sites of Suncheon. Service can be provided in English, Chinese and Japanese by making pre arrangement by calling Tour Suncheon at (061) 749-3328.



사랑의 기적! 영화 아닌 현실에도 있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12년 전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김갈리나 씨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다. 결혼 초기 불현듯 찾아온 남편의 뇌종양 소식에 절망하기도 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해낸 그녀. 현재 충남 홍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며 초기결혼이민여성의 멘토 역할을 하는 그녀를 만났다.



믿음과 사랑으로 이겨낸 시련

12년 전 카자흐스탄에서 상담교사로 근무하던 김갈리나(40) 씨는 사업자 그곳에 방문한 남편 김영길(48) 씨를 소개받고 첫눈에 반한다. 착하고 자상한 남편 하나만 믿고 무작정 결심한 한국행. 그러나 신혼의 달콤함도 잠시, 결혼 직후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은 뇌종양으로 쓰러졌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답답해요. 얼마나 놀랐던지... 모든 게 불안했지만 남편을 믿고 의지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꾸준한 치료로 지금은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죠. 아직도 약을 챙겨 먹고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요.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게 제일 어렵네요. 여보 미안해~(웃음)”

이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땅에서 병마와 싸우는 남편을 간호한다는 게 힘들고 지쳤지만, 그녀는 누구에게 속 시원히 말할 곳도 없었다. 전화카드도 메일도 없던 시절, 고국의 가족과 주고받는 편지가 유일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었다.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그녀를 남편은 자상함과 믿음으로 감싸 안아 줬다.

“요즘엔 메일과 화상채팅으로 친정가족들과 자주 연락할 수 있어서 좋아요. 결혼 이민여성을 위한 정책도 정말 잘 돼 있고요. 초기이민여성들이 센터의 방문 교육이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타국에서 사는 게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자신이 선택한 삶이니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남편도 부인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믿고 도와줘야 해요.”

열정의 원천은 소중한 가족

현재 홍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사업 분야에서 일하며 주변 결혼이민여성들의 만연니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그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에도 관심이 많은 그녀는 평택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다.

“고향에서 교육학을 전공해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죠. 다문화가정의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센터의 승인을 받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저의 경험을 살려 결혼이민여성들의 따뜻한 멘토가 되고 싶어요. 결혼 초기 겪었던 시행착오를 알려줘 그들이 실수 없이 한국에 적응할 수 있게 말이에요.”

〈나의 꿈, 나의 선택〉이라는 수기집을 펴낼 정도로 유창한 한국어와 글 솜씨를 겸비한 그녀는 지난해 모국어 글쓰기 대회에서 최고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으며 초등학교 검정고시 과정을 다시 공부하고 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대학까지 졸업했지만 아이 교육을 위해 한국 교육과정에 맞춰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의 교육체계는 역시 카자흐스탄과 많이 다르거든요. 특히 역사와 사회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이와 같은 내용을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무엇보다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있어 좋죠.”

직장과 가정, 대학원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녀지만 항상 옆에서 자신을 챙겨주는 남편과 아들이 있어 든든하다고. 가족의 사랑으로 기적같이 병마를 이겨냈듯이 꿈을 향해 걸어가는 그녀의 앞날에 기적 같은 행복만이 가득 하길 바래본다.☺



타국에서 사는 게 힘들겠지만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남편도 부인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믿고
도와줘야 해요



유난히도 가을 하늘이 청명했던 지난 10월 7일 청색과 백색 모자를 쓴 사람들이 용기중기 운동장에 모여들었다. 이날은 서울 개화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결혼이민자네트워크가 주최한 다문화 어울림마당 'I With U 가을운동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다양한 국가의 결혼이민자 가족과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함께했던 가을운동회 현장을 찾았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을운동회!
쌩쌩 달려라~
이겨라!

‘우리팀이
제일 잘나가’



10월은 푸르구나~ 어린이 세상

삼삼오오 운동장에 모인 아이들은 운동회 시작 전부터 벌써 신이 난 듯 왁자지껄 뛰어다니기 바쁘다. 분주하게 행사를 준비하는 서울사무소 직원들도 들뜨기는 마찬가지. 서울사무소 성락승 소장의 개회사와 함께 시작된 명랑 가을운동회는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게임으로 행사의 막을 올렸다.

운동장 곳곳에 숨겨진 쪽지를 찾는 ‘보물찾기’ 게임이 시작되자 아이들은 주황색 쪽지를 찾기 위해 운동장을 누비며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핀다. 첫 번째로 쪽지를 찾은 어린이는 아쉽게도 ‘꽝!’. 운동장 오른쪽에 보물이 많다는 진행자의 힌트에 아이들은 고함을 지르며 우르르~ 달려간다. 10분쯤 지나자 여기저기서 쪽지를 찾은 아이들이 마치 진짜 보물이라도 찾은 듯 주황색 종이를 팔랑팔랑 흔들어 보인다.

‘미션놀이 마당’에서는 공 던지기, 훌라후프 고리 던지기, 신발 멀리 던지기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놀이가 이어졌다. 아이들은 간단한 미션 게임에도 즐거워하며 열중했다. 옆에서 조언해주는 어른들도 어느새 함께 게임에 빠져들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품에 아이들은 어린이날이라도 된 듯 선물을 양손 가득 쥐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어 보인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품에
아이들은 어린이날이라도 된 듯
선물을 양손 가득 쥐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어 보인다

을 다 가진 듯 웃어 보인다. 베트남에서 온 보녹하(35) 씨는 “오랜만에 아이가 형, 누나들과 함께 뛰어노니깐 정말 좋아해요. 처음엔 부끄러워 망설였는데 아이와 함께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니 재밌어요.”라며 즐거워했다.

행사장 한쪽에선 ‘가족과 ‘가을’을 주제로 한 백일장 대회가 열렸다.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한자씩 정성스럽게 적어 나가는 아이들의 표정이 제법 진지하다. 박규리(구양초 2년) 양은 “엄마랑 아빠, 친구들과 함께 보물찾기를 했어요. 바위틈에 숨겨진 보물을 찾았을 땐 정말 신났죠. 백일장 글쓰기 대회에서 우승해 선물도 받았어요. 선물은 동생이랑 사이좋게 나눠 쓸 거예요.”라며 상품으로 받은 학용품을 들어 보였다.

특명! 팀을 승리로 이끌어라

맛있는 점심식사 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청팀과 백팀의 경기는 에드벌론 공굴리기, 단체줄넘기, 부부 2인 3각 릴레이 등 총 6가지 경기가 이뤄졌다. 에드벌론 공굴리기는 2열로 줄을 선 사람들이 커다란 에드벌론 공을 머리 위, 아래, 옆으로 굴려 전달하는 게임. 첫 경기는 질서정연하고 민첩하게 공을 이동시킨 백팀이 30대 100



승리에 상관없이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맘껏 웃고 뛰어놀 수
있었던 시간
가족과 함께해 더욱
즐거운 명랑 가을운동회이다



으로 승리했다. 이어진 봉 넘기 경기는 발밑으로 통과하는 막대를 높이 뛰어 피하는 게임이다. 단체전이기에 때문에 팀의 협동심이 가장 중요한 경기. 참가자들은 초반에 봉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지만 점차 게임이 진행될수록 봉을 잡고 움직이는 사람과 봉을 뛰어 넘는 사람이 혼연일체가 되어 멋진 팀전을 펼쳤다.

운동회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2인 3각 달리기. 이번 행사에서는 부부와 아이가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하나 둘, 하나 둘.” 한발씩 입으로 박자를 맞추며 반환점을 향해 달려가 보지만 몸이 마음처럼 움직여 지지 않는 듯 넘어지기 일쑤다. 경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넘어진 참가자에게 박수를 보내며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봉 넘기 경기와 단체 줄넘기, 부부 2인 3각 경기에서도 백팀이 모두 이기면서 600대 100으로 백팀의 우승이 확실시됐다. 그러나 남자 선수들의 닭싸움 경기에서 청팀이 우승하면서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결국 마지막 경기인 계주달리기로 승자를 가려야 하는 상황. 떨리는 마음으로 결승선에 선 7명의 선수는 팀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불태운다. “준비~~출발!” 선수들은 머리칼을 휘날리며 젖 먹던 힘을 다해 전속력으로 달린다. “달려~이겨라 백팀!” “청팀



따뜻한 친정집 같은 '결혼이민자네트워크'



2006년 9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내에 결성된 결혼이민자네트워크는 결혼이민여성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결성됐다. 네트워크 회원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른 국가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며, 회원 간에도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필리핀 출신 두란 멜로디아 앤을 중심으로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몽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우즈베크, 카자흐스탄 등 10여 개 국가의 결혼이민자가 네트워크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카페 '출입국결혼이민자네트워크'에는 1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네트워크 회원들은 주로 서울사무소의 민원안내 및 통역봉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행복드림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새내기 결혼이민자를 위한 통역 및 멘토링, 각종 재한외국인 관련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재할 심터인 서울이주여성상담터 및 노인복지시설 '두엄자리'를 매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나라도 놓칠세라 따라 하며 자신의 팀을 응원했다. 숨겨진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장기자랑 시간도 이어졌다. 동네가수를 자처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이 그동안 갖고앉은 노래실력을 뽐냈다. 처음 오른 무대에 수줍어하던 결혼이민여성들은 관객들의 박수와 함성에 힘을 얻어 자신감 있게 노래를 부르며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하기도 했다. “어머나, 어머나, 이리지 마세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조금은 어눌한 말투와 엇박자로 부르는 노래지만 열정만은 프로그수 못지않다. 오늘의 행사를 위해 결혼이민자네트워크 대표단 20여 명은 특별무대를 준비하기도 했다고. 틈틈이 짬을 내 연습한 사이의 '강남스타일' 공연이 펼쳐지자 현장의 열기는 후끈~ 달아올랐다. 노래가 운동장에 가득 울려 퍼지고 운동회에 참가한 모든 이들이 무대에 올라와 함께 사이의 '말춤'을 추며 스트레스를 하늘로 날려버렸다.

모든 일정이 끝날 무렵, 참가자들은 동그란 원을 그리고 둘러서 손에 손을 맞잡았다. 사회통합팀 오금택 팀장이 “당신최고!”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고맙습니다!” 라는 구호를 외치자 참가자들도 함께 구호를 따라 외치며 함성과 박수 속에 행사가 마무리됐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유승훈 관리과장은 “오늘은 청명한 날씨 속에 노래하고 춤추고, 게임을 즐기는 사이 모두 하나가 됐던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어울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네트워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줘 감사합니다. 작은 부상도 있었지만 무사히 운동회가 끝나서 다행이고,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네트워크가 더욱 발전하길 바랍니다.”라며 폐회사를 전했다.

“남편과 아이와 함께해 더욱 즐거워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결혼이민자예요. 네트워크 회원은 아니지만 이는 언니의 소개로 오게 됐어요. 처음에는 아이 때문에 오게 됐는데 오랜만에 달리기도 하고 응원도 하면서 제가 더 신난 것 같아요. 남편과 아이와 함께해 더욱 즐거워요.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 꼭 참가하고 싶어요. _장미 (30)



청팀 파이팅! 빨리 달려~” 선수들이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전달해 줄 때마다 각 팀의 응원전도 점점 고조된다. 손에 땀을 쥐는 긴장감 속에 청팀과 백팀의 마지막 주자가 달리기 시작했다. 초반에 앞서 나가던 백팀, 그러나 청팀이 막판 드라마틱한 역전극을 펼치며 백팀의 선수를 따라잡았다. 결국, 치열한 접전 끝에 명랑 가을운동회 최종우승은 청팀에게 돌아갔다.

말싸움에 직접 참여한 다음 카페 '출입국결혼이민자네트워크' 카페지기 용창식 계장은 “6년 전 시작한 결혼이민자네트워크가 어 느덧 운동회를 진행할 만큼 규모가 커져 감회가 새롭습니다. 국가도 인종도 서로 다르지만, 결혼이민자 선·후배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해요. 승리에 상관없이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맘껏 웃고 뛰어놀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이런 자리를 앞으로 자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행사 소감을 밝혔다.

숨겨진 끼를 보여줘, 내가 가수다!

운동회의 또 다른 백미는 단연 응원전. 휴식시간을 틈타 각 팀을 대표하는 응원단장들이 응원전을 선보였다. 즉석에서 선발된 응원단장은 음악에 맞춰 멋진 응원을 펼쳤고 팀원들은 응원단장의 동작을

소통을 통해 행복한 한국 정착 도울 것



서울출입국결혼이민자네트워크는 창립 6주년을 맞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어울리며 서로의 문화와 생각을 공유하길 바라는 마음에 다문화 어울림한마당 'I With U 가을운동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입니다. 슬로건처럼 모두 함께하며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통해 함께 웃고 즐기며 하나가 됐듯이 모든 결혼이민자 가족이 한마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결혼이민자네트워크는 이번 행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후배 결혼이민자 멘토링과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넓은 관할구역에 비례해 지역별로 대표자를 확충하고 국가별 모임 등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다문화가정이 정부나 자치단체의 정책적인 배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성락승 소장

한국의 음과 사랑에 빠진 푸른 눈의 작곡가
혼이 담긴 고유성,

그것이
한국전통음악
입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글로벌 국가로 도약하면서 한국의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찬란한 과거유산과 화려한 미래 비전이 공존하는 나라, 고유한 전통을 지켜가는 자존심과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도전이 함께 하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동서양의 음악을 접목시켜 새로운 시도를 이끌어내고 있는 마이클 시드니 팀슨(42) 교수를 만나보았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던 폭우를 뚫고 도착한 이화여대 음악관. 대한민국 차세대 음악주자들을 키워내는 요람답게 음악관 곳곳에서는 다양한 악기의 연주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다소 소란스러울 정도로 부산했던 연습실을 지나 층계를 오르니 아래층과는 확연히 다른 고요함이 맴도는 공간이 나타났다. 살짝 열린 작곡실의 문틈 사이로 조용히 들리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오늘 우리가 만나려 한 공존초대석의 주인공, 이화여대 음대 작곡과 부교수이자 종족음악학자인 마이클 시드니 팀슨 교수였다.

한국 전통음악, 그 고유한 아름다움에 빠지다

“한국의 전통음악에는 뭔가 혼이 담겨있다고나 할까요. 지나친 서구화를 추구하지 않고 나름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지켜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매력적이었습니다.”

이화여대에서 작곡과 클래식, 현대음악을 강의하고 있는 마이클 시드니 팀슨 교수는 자신이 한국의 음악에 매료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유년시절을 캘리포니아 주 실리콘 벨리 타운에서 보낸 그는 클래식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시아 문화를 접하게 됐다. 그리고 스물두 살 때 미국 남가주대에서 수업 시간 중에 한국의 정악, 시나위, 판소리를 처음 듣고는 음악적 지평이 순간적으로 확장되는 듯한 경험을 하면서 다양한 아시아 음악을 자신의 작품에 녹이게 됐다.



“같이 공부하던 아시아 뮤지션이나 작곡가들을 통해 중국, 일본 등 다양한 아시아 음악을 접했지만 전통 음악을 서구화하면서 그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전통음악이 더 이상 옛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전통음악은 판소리나 시나위 또는 시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화를 추구할 수 있음에도 한국 전통의 맛과 맥을 계속 유지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음악과도 차별화될 수 있는 한국 전통음악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음악의 고유한 색채와 맛을 고집스레 지키고 계승해가는 것, 이것이 동양악기만 무려 500여 가지를 수집해서 보유할 정도로 아시아 음악에 관심이 많은 마이클 팀슨 교수가 유독 한국전통음악에 큰 애정을 보이는 이유다.

정이 많고 다정한 나라, 한국

미국 캔자스 대학, 로도스 대학,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에서 작곡을 가르친 마이클 팀슨 교수는 2년 반 전쯤 한국 이화여대 작곡과로 자리를 옮겼다. 한국에 정착하기 전에도 몇 번 여행으로 한국을 다녀간 적이 있다는 그는 한국의 문화에 많은 흥미를 느꼈고, 그로 인해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다고.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고 참 다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 표현이 매우 풍부하고 솔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모두 표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술가로서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요. 그리고 모든 것이 굉장히 모던하고, 또 많은 것들이 항상 새롭게 매일같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작곡가로서 항상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었어요.”

한국의 모든 것을 사랑하지만 특히 한국 음식을 가장 좋아한다는 마이클 교수. 평상시 요리를 즐기는 그에게 있어 다양한 식재료와 조리법을 가지고 다양한 맛을 연출할 수 있는 한국 요리는 즐거운 도전의 대상이다.

“한국 음식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제는 한국 음식을 매일 먹을 정도죠. 또 한국의 깊은 역사, 아름다운 자연 경관, 아름다운 사계절이 있는 것도 제가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제 아내는 한국 드라마를 아주 즐겨보답니다.”

팀슨 교수의 부인은 대만 태생의 작곡가 이지순 씨. 그녀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영어판 위키피디아 표제어로 오를 만큼 종족음악학자로 유명하다.

“부부가 같은 분야에서 비슷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득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의 약점을 아내가 채워주고 따끔한 충고자가 되어주기도 하죠. 서로가 다른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항상 의견을 주고받고 빈 부분을 채워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재즈 그리고 판소리

지난 6월 영산아트홀 무대에서 마이클 팀슨 교수의 작곡 발표회가 있었다. ‘Contemporary Classical Arts Music(현대 클래식 예술음악)’이라고 칭해진 이번 발표회에는 그의 대표작 8곡이 선보였다. 임희준 씨 등 한국 연주자 7명과 대만의 현대음악 전문 실내악단인 차이파운드 뮤직워크숍 소속 연주자 6명이 들려준 이번 발표회에는 얼후, 후칭, 피파, 료칭 등 다양한 동양 악기들이 고루 등장하고 현악 3중주를 위한 ‘Risen Poetics’에는 시조창이 나와 관객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번 발표회는 다양한 국가의 뮤지션들이 연주에 참여해 아주 신선하고 새로운 음악을 선보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항상 제가 관심 깊게 생각했던 미국의 재즈 백그라운드와 동양의 전통음악을 접목했다고 할 수 있죠. 재즈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관심이 있었던 분야이고, 또 이쪽으로 공부하면서 아시아 음악의 큰 매력에 빠졌기 때문에 이 둘을 함께 접목함으로써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요즘엔 한국의 K-POP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미국과 달리 어릴 때부터 숙련된 트레이닝을 받고 꾸준한 연습을 통해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가는 한국의 많은



아이돌 가수들이나 케이팝 가수들에게 색다른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마이클 팀슨 교수는 음악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장르를 가리지 않는다. 항상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는 그것이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도전이라고 얘기한다.

언제나 새로운 장르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마이클 팀슨 교수. 한국의 문화와 음악에 매료됐다고 말하는 그는 자신의 음악세계를 나누기 위한 또 한 번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은 힘들지만 다른 것을 모방하려 하지 말고 나만의 것, 나만의 색깔이 있는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그리 어렵지만 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에 있어 규칙보다 제한을 두지 않고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고, 또 다른 사람과 그 음악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도전이고 창조입니다.”

클래식을 전공하고 재즈를 사랑한다는 푸른 눈의 작곡가 마이클 팀슨 교수가 읽어내는 우리의 시조창은 어떤 모습일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한계를 짓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의 음악이 전해줄 새로운 향연을 기대해본다.☺

Q&A

Q H-2 방문취업비자로 한국에 온 지 2년이 되어, 재외동포비자로 변경하려 합니다. 재외동포비자로 변경하게 되면 취업 허용 범위가 방문취업비자와 같은지, 또다시 취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2011년 8월 1일부터 방문취업 자격을 소지한 동포는 농축산업·어업·지방소재 제조업의 동일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취업개시신고(법무부)와 근로개시신고(고용노동부)를 하여야 근무기간 및 동일사업장 근무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 7월 31일 이전에 제조업·농축산업·어업·간병인 또는 가사보조인으로 취업개시 신고를 하고 동일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종전 제도의 적용을 받아 취업개시 1년 이후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한 후엔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노무행위로 고시된 세부직종 58개 및 사행행위,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의 경우는 별도의 취업개시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I want to change my visa status to F-4 (Overseas Korean) as it has been two years since I lived in Korea under the H-2 (Work Visit) visa. I want to know whether the employment scope under F-4 visa is the same as the H-2 visa, or otherwise, I have to make a Work-Start Notification.

A Since August 1, 2011, an H-2 (Work Visit) visa holder has been allowed to change his or her visa status to F-4 (Overseas Korean) if the person worked at the same workplace for two years in the industry of agriculture and livestock, fishery or manufacture in local areas. In this case, the person is required to make a Work-Start Notification to the Ministry of Justice and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o be verified how long and where he or she worked.

For your reference, if you had made a Work-Start Notification as a worker in the field of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y or as a care giver or domestic worker and had worked at the same workplace before July 31, 2011, you are allowed to change your visa status to F-4(Overseas Korean) after one year of working in accordance with the former laws and regulations.

Once you change your visa status to F-4, your employment activities will not be restricted. However, you will not be allowed to be engaged in 58 categories of occupation designated as unskilled work, speculative activities, and certain employment activities which are deemed necessary to restrict for the interest of the public or maintaining order of the job market. Additionally, an F-4 visa holder may not be required to make a Work-Start Notification.

Q 필리핀 여성과 국제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제결혼을 하려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나요?

A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다문화 가정을 형성하기 위해 2011년 3월 7일부터 특정국가 7개국(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민과 결혼하려는 한국인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매주 또는 격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수대상자는 인터넷홈페이지 소시넷(www.socinet.go.kr)을 통해 사전신청 후 접수증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정해진 일시에 프로그램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단,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 근무 등으로 91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나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한국인 배우자와 교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수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I am preparing for an international marriage with a Filipino woman. What is the international marriage guidance program, and is it a must to complete the program for international marriage?

A Since March 7, 2011, a Korean national who intends to marry a national of one of the seven designated countries (China, Vietnam, the Philippines, Cambodia, Mongol, Uzbekistan and Taiwan) has been required to complete the "International Marriage Guidance Program", to raise awareness of international marriage in the Korean society and help establish desirable multicultural families.

The program is available every week or every other week at "Immigration Integration Center" in the nationwide 14 immigration offices. If you are subject to the program, you are required to apply in advance through a website at www.socinet.go.kr and carry the application receipt and ID card to attend the program on a scheduled date. However, except that if you may prove the fact that you have been in a relationship with your foreign spouse in his or her country or the third country as you stay there for not less than 91 days for the purpose of study or business, or in Korea as your foreign spouse stay here for not less than 91 days, you may be exempt from the program.

Immigration Now



- 32 **우리팀 포커스** 한·미 자동심사운영단
- 34 **만나고 싶었습니다**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 37 **출입국 Numbers**
- 38 **WOW 출입국 탐방**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 42 **특별한 만남** 출입국 전문 변호사 차규근
- 44 **해외 단신** 세계이민동향 No.81
- 48 **출입국 News**



빠름 빠름 빠름 '스마트 출입국 서비스' OK~!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6월 13일부터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이하 한미 자동심사제)를 전면 시행했다. 한미 자동심사제는 한국과 미국, 양국의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를 상대국 국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한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상호 이용 프로그램. 한미 자동심사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담당하며 선진 출입국 행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한·미 자동심사운영단을 만났다.

최첨단 무인심사 시스템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mart Entry Service)는 도입 4년 만에 가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다. 누적 이용객은 무려 1천4백만 명에 달한다고. 이처럼 신속하고 편리한 SES와 같은 미국의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Global Entry)를 우리 국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미 자동심사제 시행으로 줄을 서서 미국 국경관리청의 대면심사를 받을 필요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 것. 6월에 시행된 한미 자동심사제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미 자동심사운영단(이하 운영단)의 구성원은 단 2명이다. 하지만, 한미 자동심사제를 초기부터 기획·진행해 온 출입국심사과와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거의 한 팀처럼 지내는 사이이다.

운영단은 한미 자동심사제 신청자의 자료를 미국 국토안보부 국경관리청(CBP)에 보내는 업무를 기본으로 하며 한미 자동심사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최종심사와 본부 승인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CBP 운영팀과 핫라인을 유지하며 이용객들의 불편과 민원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운영단에서는 자동심사 등록센터에서 취합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미국 측과 전화회의를 통해 국민 신청자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심사기준, 시스템 등을 개선합니다." 일반 공무원 업무와 달리 미국 측과 전화회의를 자주 해야 하는 운영단은 CBP 운영팀이 있는 미국 동부와 12시간 이상의 시차로 인해 옷 지 못할 에피소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 번은 새벽 3시에 일어나 CBP 운영팀에 전화를 한적도 있어요. 하지만 민원인들이 편안하고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말씀해주실 때면 힘들었던 것도 어느새 눈 녹듯 사라지고 정말 뿌듯하죠." 민원인의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기 위해 직접 한미 자동심사제를 신청하고 이용하기도 했다는 직원들의 모습에서 열정과 이용객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진다.

운영단은 아직 한미 자동심사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용객들을 위해 출입국심사과와 합심하여 제도 홍보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는 물론 공항과 등록센터에 SES 홍보물과 한미 자동심사제 팸플릿도 비치해 일반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루트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의 노력에 힘입어 6곳이었던 등록센터가 현재 10곳으로 확대됐으며 내년부터는 제주공항, 인천항까지 이용장소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독자적인 'SES 홈페이지(ses.go.kr)'도 구축해 한층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와 상호 자동심사제 시행을 위한 MOU 체결도 논의하고 있다. 이후 홍콩과 캐나다와도 상호 이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가 도입된 지 3개월, 끊임없는 제도 개선과 홍보로 바쁜 날을 보내고 있는 운영단. 운영단의 스마트한 출입국 서비스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선진 출입국행정에 일조하길 바란다.☺



한·미 자동심사운영단은?

2012. 6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제 전면 시행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한·미 자동심사운영단 신설

2013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제 시행 (예정)
자동출입국심사 전용 홈페이지 개설(예정)

주요업무

한·미 자동심사제 등록 자료 CBP 전송
최종심사 및 승인, 민원 사항 개선



① 최성은 **계장**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기술·정책적인 부분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으며, 이용 대상국도 점차 확대될 바랍니다. ② 김주연 **계장** 미국동포나 대면심사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해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③ 김현채 **사무관(출입국심사과)** 처음 진행한 사업이기에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전화회의와 모의 테스트를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④ 백덕환 **계장(출입국심사과)** 출입국심사과에서는 제도가 시행되기 전 신청자 선정기준이나 자침을 법령으로 정하는 등 제도의 기초를 쌓는 역할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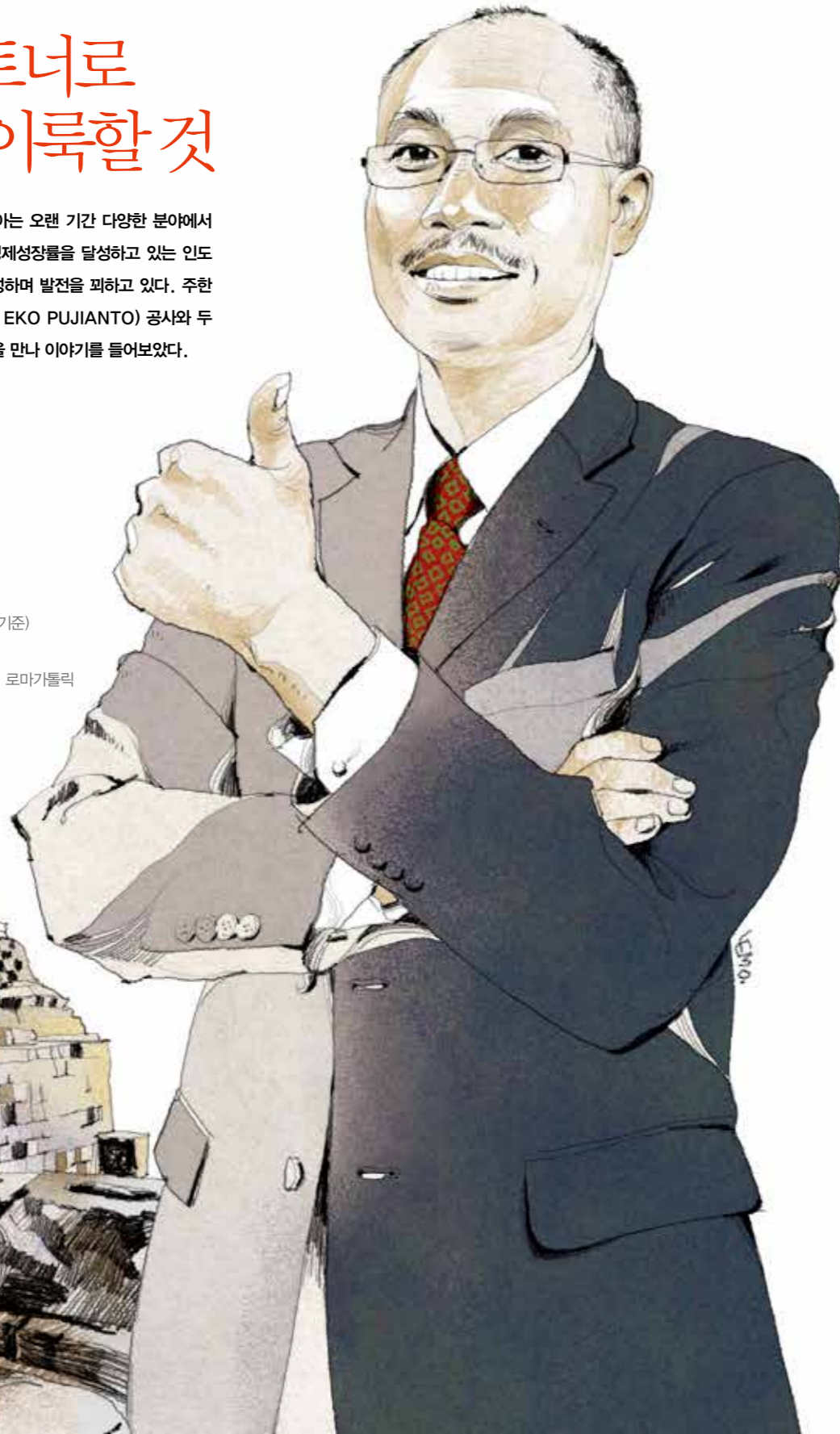
韓-印尼 경제개발 파트너로 눈부신 발전 이룩할 것

내년이면 수교 40주년을 앞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오랜 기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지속해왔다. 한국은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경제 분야의 새로운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며 발전을 꾀하고 있다.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의 디딤 에거 푸치안터(DIDIK EKO PUJIANTO) 공사와 두 이 러흐마와띠(DWI ROCHMAWATI) 서기관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1만 7천여 개의 섬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휴양지의 나라 인도네시아**

위치 동남아시아 인구 240,271,522 명(2010년 기준)
수도 자카르타 언어 인도네시아어
기후 열대성기후 종교 이슬람교 88%, 개신교 5%, 로마가톨릭



디딤 에거 푸치안터 공사는 올해 2월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에 발령받아 정치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영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진 않지만, 영사과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09년 5월 한국으로 발령받은 두 이 러흐마와띠 서기관은 현재 3년 4개월째 대사관에서 영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양국의 관계 증진과 재한 인도네시아인의 보호를 위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영사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한국은 빠른 속도로 발전을 이룬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1998년 처음 한국을 방문한 후, 올해 초 14년 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국민의식, 정부의 행정능력, 경제 등 많은 분야가 눈에 띄게 발전했더군요. 특히,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14년 전과 달리 KTX와 지하철을 이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다른 도시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죠.

인도네시아 내 한류는 어떤가요?

인도네시아 내 한류 바람은 '열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인 모두가 한국문화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어린 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한국드라마와 영화, K-POP을 즐기고 좋아합니다. 최근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인도네시아인이 생각하는 한국의 이미지는?

아시아인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인들은 쌀을 주식으로 하고 예의를 중시하며, 상대방에게 다정하게 대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같은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인도네시아인은 한국과 한국인을 친밀하게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더욱 강화해야 할 교류 분야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내년에 수교 40주년을 맞이합니다. 1966년 자카르타에 한국총영사관이 문을 열었으며, 1968년에는 서울에 주한 인도네시아영사관이 개설됐습니다. 1973년 주한 인도네시아영사관이 대사관으로 승격되며 양국은 경제, 정치,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외교관계를 형성해왔습니다. 앞으로 특히, 경제 분야에서 교류가 증가했으면 합니다. 한국은 기술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천연자원이 풍부합니다.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양국이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에는 현재 1,500여 개의 한국기업이 주재하고 있습니다. 경제 협력을 통해 양국의 기업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인을 위한 서비스나 정책은?

한국에는 3만 2천 명의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업분야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부 간 MOU 체결을 통해 고용허가제(EPS)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의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한국문화와 언어 등에 대한 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을 위해 스포츠, 문화, 워크숍, 콘서트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 인도네시아인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영사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움을 줌으로써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찾는 한국인 여행객을 위한 서비스나 정책은?

'발리는 인도네시아에 속하고 인도네시아는 발리에 속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발리는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섬입니다. 발리 이외에도 인도네시아는 1만 7천여 개의 아름다운 섬과 100개 이상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Five Wonderful Indonesia'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사람(인재), 음식, 불거리, 문화, 투자가치가 풍부한 나라라고 홍보하면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대한항공과 자카르타를 잇는 노선을 주 3회에서 2010년부터 주 7회로 늘려 운항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루다항공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승객에 한해 기내에서 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인도네시아는 발리뿐만 아니라 롬복 섬과 토바 호수 등 아름다운 명소들이 많습니다. 족자카르타는 전통적인 음식과 문화를 느낄 수

대사관은 한국에 거주하는 3만 2천 명의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업분야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있는 도시로 아직도 왕과 왕비가 존재합니다. 특별행정자치구로서 왕이 직접 통치를 하고 있으며 도시 안에 있는 성에는 왕실가족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전통적인 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국은 개인신원정보가 중앙정부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되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4천만 명이 넘고 기술력도 부족해 개인정보를 하나의 중앙기관에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시스템을 본받아 개선하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인 불법체류자의 비율을 줄이고 이들의 인권 친화적인 처우를 위해 양국이 협력해나가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디딤 공사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이미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양국의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두이 서기관 한국은 저의 첫 발령지이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른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외교부의 원칙에 따라 저의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자국민의 보호와 인도네시아를 찾는 한국인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측부터_ 디딤 에거 푸치안더 공사, 두이 러흐마와띠 서기관

Indonesia has 17,000 beautiful islands and over a hundred varieties of cultural traditions.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slogan 'Five Wonderful Indonesia', and is working to attract tourists by promoting that Indonesia is a country with abundant talented individuals, food, tourist attractions, culture, and investment value. Especially, arrangements have been made for the Korean tourists entering Indonesia through Garuda airlines to complete their immigration process inside the aircraft to provide convenience. At the Indonesian embassy stationed in Korea, efforts are being made to provide support in the employment field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32,000 Indonesian laborers working in Korea. Employment Permit System is in effect through the MOU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ch is providing help for the laborers from our country to work legally in Korea. The laborers also receive support from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to

learn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Not only that, sports activities, cultural activities, workshops, and concerts are provided for all of the Indonesian people residing in Korea. Through such events, we can gather information about the difficulties that the Indonesians are faced with, and also provide protection for them by assisting them according to the guidelines. Next year will mark the 40th anniversary of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Indonesia and Korea. We hope that the relationship will further develop in the coming future, especially in the field of economy. Korea possesses technology and capital, whereas Indonesia has abundant natural resources. We hope that we can maintain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in order for both countries to become strong economical nations. Currently, there are 1,500 Korean enterprises stationed in Indonesia. We hope that the enterprises of both countries can continue to develop through economical cooperation.

출입국 NUMBERS

10,000,000

자 동 출 입 국 심 사 서 비 스 가 입 자 1 백 만 명 을 과

첨단 정보기술(IT)을 출입국 심사에 접목한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mart Entry Service). 인천공항이 세계공항서비스평가(KASQ)에서 1위를 차지하는데 기여한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는 1인당 약 12초내에 출입국 심사를 완료한다. 이 서비스는 하루에 전체 출입국자의 12%를 처리함으로써 30명 이상의 심사인력을 증원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08년 6월 최초로 실시했던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가 도입 4년 만에 가입자 1백만 명을 돌파했다. 하루 평균 등록자만 1,260명에 달하는 SES는 이용자가 사전에 여권정보와 지문을 등록하면, 무인심사대를 통해 스스로 출입국심사를 마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면심사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해소와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최첨단 국경관리 시스템이다. 이용자들의 각광을 받으며 누적 이용객이 1천4백만 명에 육박했다. 현재 자동출입국심사대는 인천공항 38대, 김포공항 4대, 김해공항 3대 총 45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중설 및 인천항과 제주공항의 신규설치를 통해 총 57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6월부터는 한국과 미국의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를 상대국 국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를 시행했다. 현재 내국민 1,406명, 미국인 263명(9월 기준)이 이용을 신청했으며 앞으로 대상 국가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은 우리의 힘! 환한 미소가 아름다운 '하늘 길목 지킴이~'

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김포국제공항. 김포공항의 전반적인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김포사무소)는 2011년 10월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김포출장소에서 사무소로 승격됐다. 중국, 일본 등의 노선을 하루 평균 60편씩 운항하며, 연평균 출입국자만 300여만 명에 달하는 김포공항. 우리나라와 세계를 연결하는 김포공항의 길목을 책임지고 있는 김포사무소를 찾았다.



모든 직원이 부족한 인력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이라는 생각으로
이용객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넓고 확 트인 공간에 따사로운 햇살이 스며드는 김포공항은 국제공항에 걸맞는 최신식 시설과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한다. 지난해 김포공항 국제선 2층에 자리 잡은 김포사무소도 작지만 쾌적한 분위기의 민원실이 단연 눈에 띈다.

국내 소규모공항이었던 김포공항은 국제선을 취항하면서 출입국자가 급증했고 출장소로는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해 김포사무소로 독립 신설됐다. 이는 김포공항 이용객의 편의와 질서 있는 출입국관리를 위해 서기도 했다고.

타 사무소가 체류관리, 조사, 단속, 사증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달리 김포사무소는 출입국심사를 전담하는 공항만 사무소이다. 단일과인 심사과가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규제자 적발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심사과 내 운영지원팀에서는 인사, 서무, 의전 등 사무소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김포사무소는 단일과 지만 관세청 등 김포공항 내 다른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으며 출입국심사와 민원처리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하늘의 길목을 지키는 사람들

김포사무소의 주요업무는 김포공항 이용객들의 출입국심사. 현재 34명의 심사관이 4팀으로 나누어 순환근무를 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3일을 주기로 순환근무를 했으나 올해 4월부터 8일을 주기로 근무와 휴무를 병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틀을 근무하고 하루를 휴무로 하는 ‘3일 주기 근무체계’ 방식이었어요. 이틀을 연속으로 일하고 자정에 귀가하면 휴일에는 휴식을 취하느라 사생활을 가질 시간이 없었죠. 소장님과 심사과장님의 배려로 지금은 격일제 근무로 변경돼 한층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나 심사인력이 부족한 탓에 8일에 한 번은 4~5명의 직원들이 지원근무를 나와 야간 심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된다고. 심사관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13~16시간. 장시간 동안 800~1,000여 명의 승객을 심사하다 보면 힘든 것은 당연지사다. “아침 6시 40분까지 심사대에 착석하려면 새벽부터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해야 하죠. 밤 11시에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퇴근 시간이 12시를 훌쩍 넘겨버려요. 장시간 업무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도가 쌓인 상태에서 승객들에게 환한 미소를 보여 드리기가 힘들 때도 많죠. 하지만 이용객들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라고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에 힘이 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친절할 얼굴

김포공항의 출입국자는 2005년부터 연평균 30%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포공항의 주요 승객은 다수의 한류 팬을 보유한 일본과 중국, 대만 등의 국가로 서울 도심과 접근성이 좋은 김포공항을 통해 많은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관광객인 만큼 한국의 첫인상을 심어주는 김포사무소 직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기에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에도 친절할 심사로 응대하려 노력한다고.

김포공항의 항공기와 승객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사무소의 인력 증원은 그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김포사무소는 이러한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홍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8월 6일부터 17일까지는 자동출입국 등록 확대를 위한 집중홍보도 실시했다고. 이 기간 동안 김포사무소 소





장과 과장을 포함한 전 직원들은 홍보용 어깨띠를 두르고 직접 시민에게 다가가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에 대해 안내했다. 그 결과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이용이 동기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매달 베스트 심사관을 선정해 직원들이 이용객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달의 베스트 심사관으로 선정된 김영대 심사관은 “상을 받으려고 일한 것은 아닌데 베스트 심사관이라 불러주시니 부끄럽네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부족한 인력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이라는 생각으로 이용객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가족 같은 분위기 조성

김포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양차순 소장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여성 첫 기관장. 출입국관리 분야에서 여성 기관장이 탄생한 것은 1961년 법무부에 출입국관리 조직이 신설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여성 특유의 부드러움과 자상함으로 직원들에게 다가가 주셔서 가족 같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셔도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모습에서 배울 점이 많죠. 앞으로도 지금처럼 직원들이 멘토로 삼고 따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양차순 소장은 “여성기관장 1호라는 타이틀이 부담스럽지만 저를 보고 포부를 키우는 직원이 많은 만큼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 직원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제가 더 고마울 뿐이죠. 개인적으로 현재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로 새벽에 일어나 공부하는 것이 힘들지만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제 모습을 보고 직원들이 공감하길 바랍니다.”라고 회답했다.

화기애애한 사무소의 분위기를 증명해 주듯 김포사무소 내에는 다양한 동아리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 중 탁구동아리 청적백회(靑赤白會)는 직원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다. 청적백회는 푸르고 넓은 마음에서 푸를(淸), 탁구라켓 라바의 붉은 색처럼 열정적이고 섬세한 플레이를 하지는(積), 탁구공의 둥근 모양처럼 원만하게 직장생활을 하지는 의미에서 흰(白)을 조합한 만든 이름이다. 멋진 이름만큼이나 훌륭한 탁구 실력을 겸비한 직원들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심사업무의 스트레스를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해소하고 직원 간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는 기회로 삼고 있다.

강도 높은 업무 속에서 불평 불만을 하기보단 즐겁게 일하는 방법을 찾는 김포사무소의 직원들. 김포사무소로 독립한 지 1년, 날이 발전하는 김포공항과 더불어 늘어나는 출입국자로 인해 직원들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에너지로 무장한 직원들이 있어 10년, 20년 후 더욱 발전할 김포사무소의 모습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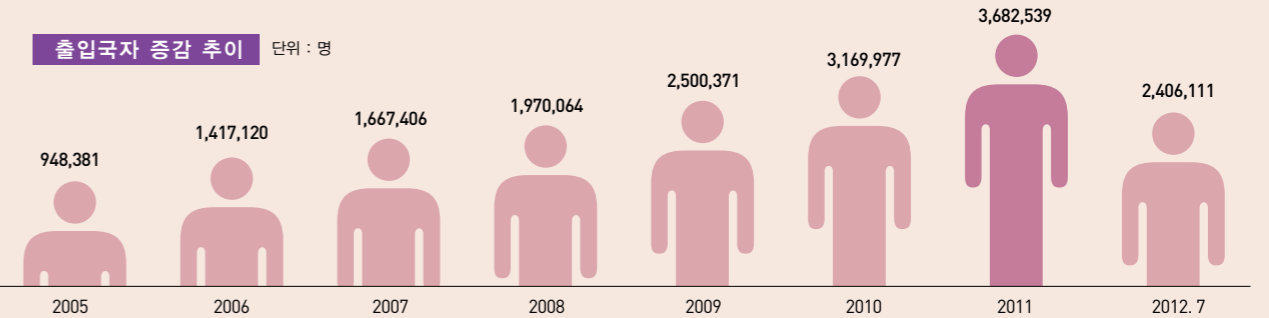
여성기관장으로서 꼼꼼한 조직문화를 이끌겠습니다

작년 10월 김포사무소로 승격된 이후 근무체계 변경,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 사무소 승격 현판식 개최 등 소소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출장소가 아닌 사무소로서 체계가 완전히 잡혔죠. 현재 김포사무소에는 단일과인 심사과만 존재하고 있지만, 앞으로 조사·감식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직제 확장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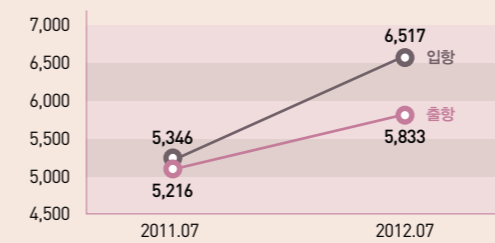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소통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위직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지금 직원들은 기관장에게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관장이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심사 현장에 직접 찾아가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기관장으로서 꼼꼼한 조직문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남성, 여성의 성별을 떠나 사랑하는 후배들이 많은 업무를 책임감 있게 완수하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조직발전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양차순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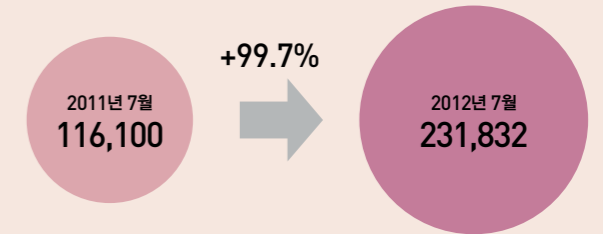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이용자 2배 가까이 증가



정기편 항공기 운항 현황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이용현황





실무행정 경험 살려 외국인의 '큰벳' 될 것

출입국 전문 변호사
차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이 150만 명에 육박하면서 출입국 업무와 관련한 법률 서비스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법률전문가는 부족한 상황. 이러한 현실에서 차규근 변호사는 법률서비스의 불모지라 불리는 출입국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주인공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최초 개방직 인사로 초대 국적·난민과장을 수행하고, 현재 법무법인 '공존'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를 만났다.

운명처럼 다가온 기회

2006년 일본 문부성의 영 리더스 프로그램(Young Leaders Program)에 참가했던 차규근 변호사는 어느 날 지인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평소 변호사로서 공적분야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던 그에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하 출입국본부)의 개방직 모집 소식은 운명과 같이 다가왔다. 차 변호사는 귀국 후 국적·난민과라는 새로운 분야에 과감히 도전했고 당당히 초대 국적·난민과장직을 맡게 된다.

10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다 처음으로 공직에 몸담게 된 그는 국적과 난민이라는 중요하고 까다로운 업무를 맡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국적업무는 원래 법무실 법무과에서 검사가 처리하던 업무예요. 2000년대 이후 체류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면서 출입국본부가 업무를 맡게 됐죠. 비록, 공직에 몸담게 된 것은 처음이었지만, 10년 동안 변호사로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 한센병소송지원위원회, YMCA 시민권익위원회 등의 활동을 통해 쌓은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그 이전보다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차 변호사는 5년간 국적·난민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눈부신 성과를 이뤄내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그는 외국인의 비자발급, 입국, 체류, 불법체류, 단속, 보호, 강제퇴거, 국민 출국금지 등 출입국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직접 접하며 국적법 개정의 실무 책임을 맡는 한편, 난민심사제도의 개선을 이끌어냈다.

“업무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죠. 출입국 직원분들도 외부 인사라고 어려워하지 않고 혼연일체가 되어 헌신적으로 업무에 임해줬어요. 민원이 많아 힘들기도 했지만 모두가 인화 단결한 결과 국적법 개정안 통과, 난민제도 개선 등 많은 실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법무부장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병무청장상,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죠.”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절실

5년간의 국적·난민과장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난 해부터 서울 서초동에서 출입국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아직도 국적, 난민제도의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안타깝다고. “출입국 본부의 직원은 모두 역량이 뛰어나고 간부들의 의지도 강합니다. 그러나 물적·인적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업무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지요. 현재는 성격이 다른 업무를 국적·난민과에서 모두 처리하고 있어 한 가지 업무에만 집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민청 같은 힘을 가진 조직으로 발전해 효율적인 선택과 집중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입국본부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출입국 업무 관련 전문 변호사로 새 출발을 시작한 그는 마지막으로 친정 같은 출입국본부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외부에서 바라보니 출입국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느껴지더군요. 간단한 업무라도 외국인 가족들에게는 인생이 걸린 중대한 일임을 명심한다면 좀 더 효율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하며 체류 외국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출입국 전문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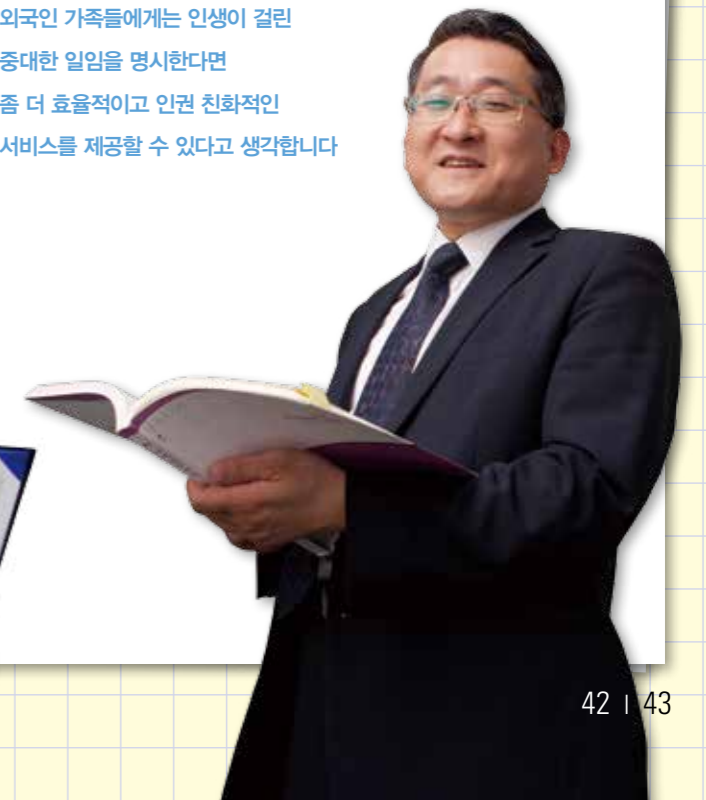
간단한 업무라도

외국인 가족들에게는 인생이 걸린

중대한 일임을 명심한다면

좀 더 효율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UNITED STATES OF AMERICA

01 미국, 연방법원의 Arizona 이민법 주요조항 지지

Arizona주의 경찰 혹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을 발견할 경우 그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원이 인정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인종차별과 관련된 논쟁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Arizona주는 경찰이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대법원 또한 이 조항이 합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법 조항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항인 'Section 2(B)'는 범죄조사를 위해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있다.

Arizona 이민법 반대여론 불구, 다른 주로 확산 조짐

Obama정부는 미국 헌법이 연방정부에 이민정책 집행에 관한 단독적인 권한을 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Arizona이민법에 이의를 제기했다. 미국 지역법원 Suan Bolton 판사는 지역법원이 Arizona이민법에 대해 더는 반론을 제기할 수 없으며, 대법원의 판결에 상응하는 입장에 설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녀는 Arizona 주 내부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보호하거나 이주를 도와주는 것을 불법행위로 간주하는 기본적인 법률시행을 승인했다. 이 법은 공화당 출신의 주지사 Jan Brewer에 의해 2010년 4월에 발의됐는데, Brewer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멕시코와의 국경관리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Arizona주는 36만 명의 불법이민자의 고향으로 불리며, Alabama, Georgia, Indiana, South Carolina, Utah주에서도 Arizona이민법을 따라 이와 유사한 법률을 마련 중이다.

이민자 문제는 올해 미국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다. Obama 대통령은 최근 미성년자로 미국에 입국한 불법 체류자들의 합법화와 이들의 취업을 허가해주는 정책을 마련 중이다. 이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 Romney는 Obama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대해 반대를 표명했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민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BBC, 2012.9.6]



GREECE

02 그리스, 아테네서 적발한 불법체류자 1,600여 명 퇴거조치

그리스 이민청은 정부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1,600여 명의 불법체류자가 강제 퇴거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단속에서 6,000여 명은 보호 조치 됐으며, 그 중 일부는 보호 일시해제 처분이 내려졌다.

Nikos Dendias 공공안전부 장관은 "이번 불법체류자 단속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그리스의 경제가 악화되어 더는 외국인 불법취업 노동자들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민'이라는 단어를 국가와 사회 기초를 위협하는 폭탄에 비유했다. 또한, "그리스가 이민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붕괴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에 적발된 88명의 불법체류자는 이미 지난 일요일 파키스탄으로 강제퇴거된 상태이다.

그리스 정부는 시리아의 상황 악화로 인해 터키를 통해 그리스로 밀입국하는 난민들의 숫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터키와의 국경지역에 더욱 많은 국경수비대원을 배치하였다. 실제로 EU로 입국하는 이민자 80% 이상이 그리스 국경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몇몇 그리스 정치가들은 정부가 이민자에 대해 강경노선을 취하라고 요청했다.

최근 선거에서 우파인 Golden Dawn 당이 승리했다. 이들은 지난주 그리스 의회 주변을 배회하는 거리의 부랑자들에게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그런데 Kathimerini 신문에 따르면 혈액형을 포함한 주요한 개인정보와 그리스 국적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에 한해서만 무료로 음식을 제공했다고 한다.

그리스 정부는 이민자 관리문제로 인해 종종 비판을 받아왔다. 암네스티 인터네셔널은 그리스정부가 난민을 범죄자처럼 취급하고 보호소에 이들을 감금하는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그리스는 많은 이민자가 그리스를 통해서 EU로 불법입국하는 상황에서 목적국인 EU 국가들이 이민문제에 대해서 그리스 정부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그리스 정부만 불공평하게 이민자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왔다.

[BBC, 2012.8.6]



UNITED KINGDOM

03 영국, '고부가 가치' 승객에 대해 전용 출입국심사대 설치·운영

영국 국경관리청(UKBA)은 "부유층 승객이 영국의 공항에서 출입국심사를 받기 위해서 한 시간 이상 대기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런던을 비롯한 영국 내 국제공항에 전용 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Brian Moore 국경관리청 출국국장은 "의회에서 영국항공사가 선정한 VIP 고객과 영국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되는 승객이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받을 때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를 마련 중이다."라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올해 Heathrow 국제공항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되었던 출입국심사 '우선제공서비스'의 연장선에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호주,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 국민 중 자격요건을 갖춘 승객은 전용 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Moore 국경관리청 출국국장은 "현재 공항운영자들과 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추후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Keith Vaz 내무부 위원회 의장은 제도의 시행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화해 줄 것을 요청했고, Moore 국장은



미국이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미국 입출국 시 까다로운 대면심사 때문에 힘드셨죠?
6월 13일 시행된 한·미 상호 자동출입국심사제로 미국이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대면심사 없이 무인 자동심사대를 이용해 빠르고 간편하게 미국에 방문하세요.

국민의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신청 절차



※ 자세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의 수혜자는 영국경제에 보탬이 되며, 항공사에 의해 선정된 주요고객이 될 것이다. 이 제도는 영국이 비즈니스맨을 환영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영국 국경관리청은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여 자주 여행하는 승객, 부유층 승객과 그 가족, 영국대사관이 영국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명하는 주요인사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BBC, 2012.8.6]



SPAIN

04 스페인, 이민자 의료보험 혜택에 관한 딜레마

브라질 출신의 이민자 Simone과 나이지리아 출신의 이민자 Prince는 둘 다 스페인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이다. 이들은 모두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 그리고 최근까지 무료로 의료보험 적용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달라지게 됐다. 9월부터 18세 이상의 불법체류자는 응급상황 혹은 출산의 경우에만 무료 의료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험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42세인 Prince는 나이지리아 출생이며, 15년 동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거주해 왔다. 그는 HIV 보유자이며, 치료를 위해서 4개의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 왔다. 그는 스페인 의료보험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며, 새롭게 변경되는 제도 하에서는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 그는 “의료보험 없이는 몇백 유로에 달하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으며, 새로운 법안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40세인 Simone은 지난해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그녀는 유방절제수술과 더불어 화학 치료를 동시에 받고 있다. 기존의 의료보험 법 아래에서는 이 모든 치료가 무상으로 제공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값비싼 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세계의사협회는 ‘치료받을 권리’라는 타이틀 아래 스페인의 새로운 의료보험 법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스페인의 의사들에게 새로운 법에 반대하기를 독려했고, 법적 신분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세계의사협회는 약 15만 명의 스페인 불법체류자들이 새로운 법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Ricardo Angora 대표는 이 새로운 법으로 인해 많은 이민자가 주류사회에서 벗어나 소외될 것이며,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언급했다.

[BBC, 2012.9.5]



교과부와 법무부의 MOU 체결

다문화가정 자녀, 정규학교 전·입학 쉬워진다



법무부 권재진 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은 지난 7월 3일 서울 중구 서울다솜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공교육 진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로 법무부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에 교과부의 다문화 전담코디네이터가 참여하여 다문화가정에게 학교 전·입학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정규학교로의 진입을 돕게 됐다. 또한, 법무부는 다솜학교나 예비학교 등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출입국사무소'를 운영한다. 법무부 권재진 장관은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국내로 이주한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 지원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이 어머니의 나라와 한국을 잇는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6월부터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시행

자동출입국심사, 100만 명 돌파 기록!



법무부는 지난 9월 26일 권재진 장관을 비롯한 공항공사와 항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mart Entry Service) 가입자 1백만 명 돌파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는 2008년 6월 SES를 최초로 시행한 이후 4년 만의 일이다. SES는 사전에 여권정보와 지문을 등록하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해 스스로 출입국심사를 마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현재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에 자동심사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9월부터 제주·대구·대전·광주·청주사무소에서도 자동출입국 등록을 할 수 있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김포·김해공항에 자동심사대를 증설하고 인천항과 제주공항에도 신규로 설치해 총 57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올해 6월부터 한국과 미국 간에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를 시행했다.

하일, 자동출입국심사 홍보대사 위촉

"자동출입국심사 알리는데 앞장설 것"



방송인 하일(광주외국인학교 이사장)이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mart Entry Service)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지난 9월 26일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가입자 1백만 명 돌파 기념행사'에서 진행된 위촉식에서 법무부 권재진 장관은 하일에게 위촉장과 꽃다발을 전달하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쉽게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하일은 "최첨단 서비스인 자동출입국심사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영광스럽다. 앞으로 많은 이들에게 빠르고 편리한 자동출입국심사를 알릴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기념식 및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개최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6주년 행사 열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0월 7일 결혼이민자네트워크 창립 6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서울 개화초등학교에서 진행된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가을운동회'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은 가족과 함께 '명랑운동회'와 각종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어울림의 시간을 가졌다. 가을운동회 개최에 앞서 지난 9월 20일 창립 6주년 기념식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의 생활수기를 들으며, 그동안의 한국생활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다지기도 했다. 생활수기를 발표한 몽골 출신 온드라 씨는 "처음 한국에 정착할 당



시 언어소통과 사고방식의 차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회원들과 서로 대화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양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종합민원센터 개소

쾌적한 민원환경에서 서비스 제공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7월 23일 민원인의 편의와 양질의 이민행정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대한항공빌딩 1~2층에 종합민원센터를 개소했다.

1층은 외국인 체류관리 업무를 비롯해 출입국 관련 제증명서 발급, 국제결혼 희망자 교육접수, 결혼이민자 사회적응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2층에서는 사증발급신청서 발급, 국적업무 등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국제결혼 희망자 교육을 접수하며 결혼이민자의 한국정착을 사회적으로 지원한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이복남 소장은 "종합민원센터 개소로 넓은 민원 대기공간과 국적 면접실을 확보해 쾌적한 민원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언어·청각장애인 수화로 상담 가능

110 온라인 화상 상담서비스 개시

지난해 11월부터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가 언어·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시작한 온라인 화상(수화) 상담서비스가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청, 각급 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확대 운영된다.

정부대표민원전화인 온라인 화상 상담은 일반 전화기를 이용할 수 없는 언어·청각장애인들이 정부 민원을 수화나 문자로 문의해 상담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번 확대운영으로 기존의 110홈페이지(www.110.go.kr)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 전국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휴대전화 문자상담과 씨트크 수화상담, SNS 실시간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110홈페이지(www.110.go.kr)와 스마트110(m.110.go.kr)에서 예약 상담 및 문자상담이 가능하다.

K.I.S. Information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접수

출입국사무소에서 자진신고 하세요~

법무부는 지난 9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국내에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현재와 과거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인적사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다. 해당자는 자신이 등록한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고하면 된다. 자진신고자는 출국명령서 및 출국확인서를 발급하여 출국하도록 조치하며, 출국 6개월 후 신원이 확인되면 사증을 발급하여 재입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 시에도 적용하여, 적발된 자는 강제퇴거하고 10년간 입국을 금지할 예정이다.

Voluntary Notification of Identity Mismatch Visit Immigration Office to Make Voluntary Notification

The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running the centers for "Voluntary Notification of Identity Mismatch" at nationwide immigration offices, since September 17 to November 30, 2012.

The eligible person for the notification is a foreigner lawfully residing in Korea, holding a passport under mismatching personal information. To make the notification, you may visit the immigration office having proper jurisdiction over your place of residence. Once the notification is submitted, you will be issued a departure order and the certificate of departure before leaving Korea and you may reenter under the new visa with a verified identity after six months from the day of departure.

The Ministry of Justice will apply the biometric identification system to the application process for naturalization or visa issuance, and impose a deportation order and 10-year entry prohibition on the caught persons.

Blue post는 <共Zone> 독자 여러분들이 참여해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共Zone> 이 보다 알차고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BLUE POST

2012 AUTUMN

<공존>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이 읽어도 좋은 정보가 많더군요. 평소 여행이 취미인데 '체험! 코리아' 강릉 편을 보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숨은 명소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영어기사지만 쉽고 재밌는 내용이라 지루하지 않게 읽었습니다. 다음 여행지도 기대할게요~

김대석 광주 남구 구동

저는 태국에서 온 결혼이민여성이에요. 출입국사무소에 한국어를 배우러 왔다가 우연히 <공존>을 보게 됐어요.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출입국의 스마트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죠. 영어와 한국어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공존>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왕사문 한참니 대구 중구 도원동

'희망교실 스케치' 코너에서 외국인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직장에서 퇴근한 집에 가서 쉬고 싶을 텐데 밤늦게까지 열정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하시더군요. 타국에서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조금 나태해졌던 저에게 자극이 되는 기사였어요.

차민정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출입국사무소에서 이처럼 많은 일을 처리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청주사무소 직원분들이 민원부터 공항업무까지 척척~ 해내시는 걸 보니 직업정신이 정말 뛰어나신 것 같아요. 저도 직장인으로서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자들이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한 <공존>이 되길 바랄게요.

이정석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이번 호 <공존>도 좋은 정보로 가득해서 좋았어요. 특히, 세계인의 날 축제 기사가 기억에 남아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행사인 것 같아 내년에는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송국화 전북 순창군 순창읍



역사로 배우는 한국



新한류의 원천, 세계의 중심에서 '한글'을 외치다!

대한민국은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훈민정음(한글)의 반포를 기념하며 한글의 가치를 되새기고 있다. 문자는 사람의 사고를 기록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문명을 발달시키지만 모든 국가가 고유의 문자를 갖고 있지 않다. 이는 전 세계에 237개의 국가가 있지만 문자의 수는 28개에 불과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566년 전 이미 문자의 중요성을 깨달은 조선의 4대 임금인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훈민정음'을 창제했고, 비로소 한국 고유의 문자인 '한글'을 탄생시켰다.

한글은 모음과 자음 총 24자를 기본으로 무한한 소리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과학적인 문자다. 창제 당시에는 28자였으나 현재는 'ㄷ, ㄱ, ㄴ, ㄷ, ㅅ' 4자가 빠진 상태다. 모음은 '·, ㅡ, ㅣ' 3음을 조합하여 10자로 구성되며 자음은 'ㄱ, ㄴ, ㄷ, ㄱ, ㅅ, ㅇ' 5음에 획을 더해 14자를 만들었다. 한글의 가장 큰 특징은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 만든 하나의 글자가 한 음절을 내는 소리글자라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외국인도 쉽게 한글을 배울 수 있다. 과학적이고 간결한 한글 체계 덕분에 한국의 문맹률은 0%에 가까운데 이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한글의 과학성은 디지털 시대에 더욱 빛을 내고 있다. 최첨단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손바닥만 한 자판에 문자를 효율성 있게 배치할 수 있는 글자는 한글이 유일하다고.

한글은 한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인이 함께 사용하는 문자로 자리매김하며 신한류를 이끌고 있다. 현재 43개국 90개소에 설치된 세종학당은 한글교육을 통해 세계인에게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으며, 2009년 인도네시아의 짜야짜야족은 한글을 문자로 도입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엔 한글을 모티브로 한 의류, 부채, 가전제품 등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어 한글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로 566주년을 맞이하는 한글날. 외래어와 인터넷 용어의 빈번한 사용으로 아름다운 한글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글이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한글'을 더욱 아끼고 사랑해야 할 때이다.